

무너진 국가비전
민주당이
세우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2024 신년 기자회견



더불어
민주당

무너진 국가비전 민주당이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제가 병실에 누워있을 때, 태안의 한 가족은 삶을 포기했습니다.

아홉 살 딸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불의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손은 누가 잡아주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중이고, 때 아닌 전쟁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국가 존속을 걱정해야 하고,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라는 4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 폭력적인 국정의 정상화

우리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감세를 추진했습니다. 초부자감세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습니다.

■ 전쟁 위기

“이러다 정말 전쟁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민족 동질성마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남북한 간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치킨게임 속에서, 완충 구역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위협은 남과 북 모두에게 조금도 도움 되지 않습니다. 전쟁위험은 천만분의 일이라도 높여서는 안됩니다.

만에 하나, 북풍사건 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 저출생(인구) 위기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증요법만 남발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만 넘쳐 납니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눈 감고 있습니다. 자산·소득의 양극화와 경제 악화로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사회에서,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습니까?

무너진 국가비전 민주당이 세우겠습니다!

■ 민주주의의 위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거부합니다.

국회가 국민 의지를 반영해 통과시킨 법들은 압도적 국민의 의사와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에 저지되었습니다.

엄동설한에 오체투지하며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법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시행령통치로 국회 입법권과 행정감시권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검찰 출신이 정부와 민간의 요직을 독점하며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불통만 강화되었습니다.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되었습니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습니다.

■ 모든 문제에는 해법이 있고, 극복할 수 없는 위기는 없습니다.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살림의 정치로 국민의 힘을 모아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새 길을 열어내야 합니다.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무너진 국가비전 민주당이 세우겠습니다!

■ ‘기후위기 대처, AI 투자’는 생존의 필수조건

우리는 생존을 보호받는 복지국가를 넘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입니다.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합니다.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합니다.

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하여 “AI·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R&D 투자를 늘려야 할 때입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이미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 된 만큼,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벤처 투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 ‘남북 핫라인 복원’으로 전쟁위기 극복

동해로, 서해로 연일 무력도발을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십시오.

핫라인은 적대국 간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존재합니다.

■ ‘출생기본소득’, 저출생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저와 민주당은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무너진 국가비전 민주당이 세우겠습니다!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하여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합니다.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합니다.

■ 함께 사는 세상, 행동하는 국민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고 민생,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복원하겠습니다.

소득, 주거, 금융,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나라, 평화와 공존의 문화 위에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입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 미래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2024. 1. 31. 수. 당대표 신년 기자회견

이재명

